

## 세상世上과 세계世界

| 월인 |

세상世上은 인간(人)을 넘어서(上) 있는 것으로 분별되지 않은 우주 전체 또는 불이(佛)의 세상을 말하며, 세계世界는 내 마음속에 경계(界)지어져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한정된 감각기관을 거친 후 마음에 남은 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世界이며, 세계는 세상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말합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 경험의 수평 차원과 수직 차원

소疏에 보면 ‘아뢰야식은 생멸심生滅心과 불생멸심不生滅心이 동시에 있다.’고 말하는 것에 반박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마음의 본체인 심체心體(여기서는 아뢰야식을 말함)가 생멸한다면 본질이라는 것이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질이라는 것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 “마음의 본체가 고요하다가 무명의 바람이라는 인연을 따라 생멸한다면 본체도 생사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본체라 할 수 있겠는가? 본마음은 생사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체의 생멸과 불생멸을 동시에 논하는 것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효는 본질적인 마음의 ‘모습’은 무명의 바람을 따라 변하지만 본질 스스로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경험만 해온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소疏에서 반박하는 사람은 “본질이 있다면 본질과 본질 아닌 것은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본질도 본질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났다 사라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본질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깊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바다가 본질이라면 바다와 파도는 다르므로 바다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표면의 파도(표면의식)가 있고, 그 밑에 잔잔하게 흔들리는 전의식前意識이 있고, 저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무의식無意識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 표면에서 심층까지 전 영역에 걸쳐 동시에 있으며, 물이라는 측면에서

표면과 심층이 다르지 않습니다. 즉, 표면의 마음이기도 하고, 전의식이기도 하고, 심층의식(무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표면은 흔들리고 태어나고 죽지만, 저 깊숙한 곳은 꿈쩍도 하지 않으며, 표면이 흔들려도 물이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기에, 흔들리는 마음과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도는 생멸하고 바다는 생멸하지 않지만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라는 말이며, 아뢰야식은 생멸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뇌졸중을 일으킨 후에 벽에 손을 댔더니 내 손과 벽이 다르지 않고, 벽에도 의식이 있고, 내 의식과 벽의 의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 등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만상萬象이 하나다.”라고 말한 질 테일러 Jill Bolte Taylor라는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표면부터 심층까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할 때의 상태에서 벽에 손을 짚으면, 내 손도 원자로 가득 차 있고, 벽도 원자로 가득 차 있으니 원자가 원자를 만나는 꼴이어서 분별과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만상이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이고, 또한 하나라고도 할 수 없는 불이不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 다시 돌아와 보면 손은 손이고 벽은 벽입니다. 즉 분별의 세계로 오면 이것과 저것의 구별과 차별이 있고 생멸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별없는 ‘세상世上’과 분별의 ‘세계世界’<sup>1)</sup>가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불이不

---

1) ‘세상’과 ‘세계’ : 이 책에서 세상은 나눌 수 없는 불이不二의 것을, 세계世界는 세상에 경계畛를 그어 만들어진 가상의 분별 세계를 상징한다.

그의 세상이기도 하고, 끊임없는 생멸이 일어나고 분별과 경계로 가득 찬 세계世界이기도 합니다.

### 마음이 일으킨 파도, 그 분별의 생사生死

깊은 선정이나 삼매三昧 등의 ‘너’와 ‘나’가 없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보는 통찰 상태가 바로 바다로 보거나 원자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 파도로 보는 것은 분별로 보는 방식입니다. 불생불멸의 여래장의 바다에서 파도로 나타나는 것이 7식, 6식, 5식입니다. 분별하는 속성을 타고난 감각기관을 통한 5식, 6식, 7식은 모두 분별하는 것이고, 8식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이 되어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식의 선線이라는 것이 칼로 자르듯이 딱 정해져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느끼다 보면 의식의 선이 점점 내려가게 되어 나중에는 깊은 무의식의 흔적까지도 분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별로 보는’ 모든 것에는 생사生死가 있습니다. 외부를 보는 것이 실제로는 마음의 느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컵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컵이 탄생하고, 고개를 돌려 벽을 보는 순간 컵은 죽고 벽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분별로 인해 끊임없는 생사生死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일으킨 파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감각<sup>TM 2)</sup>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감각 상태에서는 컵을 보든 벽을 보든 아무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미묘한 분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별없음과 분별 있음이 동시에 있는 그때, 분별없음에 초

---

2) 감각 : 깨어있기 용어, 마음의 상이 없이 감각적 자극만 있는 상태로 마음이 하는 분별이 없는 상태

점을 맞추면 마음은 탄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분별로 보는 동시에 분별없음이 같이 있는 것을, 대승기신론에서는 아뢰야식이 생멸하기도 하고 불생불멸하기도 한다는 모순된 말로써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에서만 모순될 뿐입니다.

### 세상 전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세상은 있는 것인가?

지금부터는 세상世上과 세계世界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세상世上은 인간(世)을 넘어서(上) 있는 것으로 분별 되지 않은 우주 전체 또는 불이不二의 세상을 말하며, 세계世界는 내 마음속에 경계(界) 지어져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라는 한정된 감각기관을 거친 후 마음에 남은 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世界이며, 세계는 세상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계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경계의 유무有無입니다. 세상은 나뉘지지 않았고 분별 되지 않았지만, 세계는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이비설신으로는 오직 세계만을 볼 뿐입니다. 세상은 분별없이 ‘보일 뿐’, 분별된 의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뉘지 않아 분별이 없는 불이不二의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연필과 컵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별개인 두 개로 볼 수 있을까요? 연필과 컵 두 개만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 세상 전부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이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의식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상상도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세상을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이유는, 감각기관의 한계와 특성으

로 인해 마음의 흔적들에 ‘느낌의 차이’가 생기고 구별되는 것에 선을 긋고 이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상을 경계 지은 것을 앞으로 우리는 세계世界라고 부르겠습니다.

경계지어진 세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원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 하늘과 땅이 전부 다르고 차이가 있게 보이지만, 감각 상태<sup>TM</sup>나 깊은 삼매<sup>三昧</sup>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눈에 다 보이지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아뢰야식, 여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동일하게 인식한다”라는 말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인식한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것인데 지금 킵과 마우스를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본다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감각적 자극만 있고 알거나 느낀다는 생각이나 감지가 없는 상태)으로 보면 마음이 멈춰 마우스와 킵을 구별할 수 없고, 하나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전히 구별(자극으로서의 구별)이 있으면서도 구별(느껴거나 아는 구별)이 없는 마음입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갔다 통찰을 일으키고 나온 사람만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뢰야식에는 분별 있는 세계도 있고, 분별이 없는 불이<sup>不二</sup>의 세상도 있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이전까지 아뢰야식은 생멸하는 마음, 현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신론에서는 의식되지 않는 수많은 현상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무의식, 아뢰야식)에 현상들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분별없는 마음의 본질인 여래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해서 아뢰야식을 여래장이라고 처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그 여래의 씨앗(눈)이 아뢰야식뿐만이 아닌 모든 현상 속에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상 역시 여래장이며 생멸하는 것이 곧 불생불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일 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전에는 중생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이기에 중생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대승불교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중생을 곧 부처라고 본 것입니다. 중생은 생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처는 생멸하지 않는 마음을 얻은 사람인데 중생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생멸하는 마음이 곧 불생불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감각과 감지, 불생불멸과 생멸

생멸하는 마음이 왜 불생불멸의 마음인지를 파도와 바다의 비유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에 잠시 바람이 불어 생겨난 현상일 뿐인 파도를 ‘자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라면, 파도는 현상일 뿐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사물의 느낌, 사물을 만질 때의 느낌 등의 생겨났다 사라지는 다양한 느낌 속에 머물며,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라고 믿는 것이 생멸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의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순간의 느낌에 머물지 않으며, 그것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에 불과함을 알 때, 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감각과 감지로 보자면, 감각 상태에서 마음에 어떠한 느낌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마음이며, 이는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온 우주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하게 인식된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감지 상태에서 마음에 다양한 느낌이 생겨나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지의 차원에만 머무는 사람은, 당연히 바다와 파도

를 구분하여 “바다는 파도가 아니야”라고 말하듯이 마음에 드러난 현상은 마음 자체와는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본체가, 끊임없이 변하는 마음의 표면의식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것이지요. 이런 반문은 경험 여부의 차이로 인한 것이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각으로 본 사람은 구별되면서도 구별되지 않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저 드넓은 대지에 폭우가 쏟아져도 대지는 조금도 젖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젖지 않았겠어요? 폭우가 쏟아졌으니 다 젖었겠지요. 그렇지만 젖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생멸하는 마음과 생멸하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사들의 선문답을 보면 이와 같이 언어도단言語道斷의 것이 많습니다. 불생멸심과 생멸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차이를 알지만 차이 없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 때 가능하다고 원효는 말했습니다.

### 파도는 결코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만들어내는 5식에는 구별이 있고, 6식과 7식에는 미세한 구별이 있으나, 감각 상태를 통해서 분별과 분별없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8식이라 말하는 아뢰야식 즉 무의식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경향성이 남아서, 의식되지 않는 미묘한 느낌으로 끊임없이 표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8식 역시 분별과 분별없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감지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뢰야식은 여래장이다. 무명 경계의 바람이 장식藏識의 바다에 7식의 파도를 일으킨다.” 즉 경계를 일으키는 무명



이, 바다처럼 생멸하지 않는 여래장에, 생멸하는 7식의 분별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여래장은 생멸 없는 바다이기도 하고 생멸하는 7식의 파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래장은 변화가 없기에 생멸이 없다고 했고, 7식의 파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생멸이 있지만, 7식의 파도는 결코 바다를 떠난 적이 없기에 생멸없는 여래장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라는 것이 일종의 파도임을 철저히 파악할 때 그 의미는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이 비유, 즉 파도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한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파도들을 ‘느낌’으로 관찰해나가다 보면 어느날 그 변화하는 느낌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느낌을 일으키고 있는 본질 때문이며, 이 본질은 변함없이 항상했다는 것을 깨우쳐 알 것입니다.

지금 아뢰야식에 생멸하기도 하고 생멸하지 않기도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 아뢰야식에 대한 정의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나올 각覺과 불각不覺의 내용이 이해됩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疏에서 아뢰야식에 대한 설명을 길고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뢰야식을 무의식이라고 했지만, 아뢰야식이 여래장이라는 의미는 실상은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보다 더 깊은 것이어서 단순한 무의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 生一切法.  
차 식 유 이 종 의 능 섭 일 체 법 생 일 체 법

이 식識에 두 가지 종류의 뜻이 있어서 일체법을 포괄하며, 일체법을 낼 수 있다.

[논論]


이것은 생멸과 불생멸의 두 가지 뜻을 말하니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말했거니와 뒤에서 그 의미를 각과 불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  
 운 하 위 이 일 자 각 의 이 자 불 각 의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각覺의 뜻이고, 둘째는 불각不覺의 뜻이다.

[논論]

각覺, 불각不覺이라고 하지 않고, 각의 뜻(覺義)과 불각의 뜻(不覺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이 말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십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음'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부동의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